

## 개 방 과 F T A

### ≡ 차 례 ≡

1. 동북아의 중심국가가 되겠습니다
2. 개방은 대한민국의 생존전략
3. 전 국민의 걱정 근심을, 정부라고 왜 안 하겠습니까
4. 한국 경제 자신감 갖고 능동적 개방, 경쟁 충분히 감당할 것
5. 대한민국, 이제 안심하고 투자하십시오

### 1. 동북아의 중심국가가 되겠습니다

#### □ 동북아 경제중심국가로 만들어 갈 것

저는 우리나라 동북아 경제중심국가로 만들어가고자 하는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북아는 전 세계 생산의 약 5분의 1을 차지하고 습니다. 지정학적으로 한국은 거대경제권인 중국과 일본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서울에서 반경 1,200km 안에 7억 명의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이 인구는 미국과 EU의 전체 인구를 합친 것보다 많습니다. 또한 한국은 고급두뇌와 생산 기술, 선진 선두수준의 정보화 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인천신공항, 부산항, 광양항 등 충분한 물류기반도 구비되어 있습니다. 남북관계가 진전되어 남북

횡단철도(TKR)를 시베리아횡단철도(TSR), 중국횡단철도(TCR)와 연결시키면 아시아와 유럽이 연결되고 한국은 그 시발점이 될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시베리아의 가스를 한반도를 거쳐서 일본까지 공급하는 가스관 건설사업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AMCHAM, EUCCK 조찬간담회에서 2003. 1. 17)

□ 동북아 시대는 경제를 넘어 역사적 주체성과 지역통합의 의미를 담고 있어 저희가 동북아 물류 비즈니스 중심국가, 이렇게 처음에 표현했습니다. 동북아 경제중심, 동북아 중심국가, 또는 동북아 시대도 제가 사용한 단어입니다.

우리의 주관적 의사와 관계없이 동북아 시대가 오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경제적 측면에 있어서 세계 경제의 중심이 동북아로 옮겨온다는 것은 누구도 이익을 제기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단지 동북아가 세계 경제의 중심으로 등장하는 것으로 끝나는가 여기에서 이제 한국이 대응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산업적 대응전략을 생각한 것이 동북아 중심국가입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동북아 시대를 얘기할 때는 단순한 경제적 측면에서의 동북아시아 그 이상의 어떤 개념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경제발전의 계기로서만이 아니라 EU와 같이 소위 지역통합의 질서, 또는 지역 공존의 질서로 발전해 간다면 우리 한국의 정치적 위상도 변방의 역사를 극복하고 적극적으로 그 지역의 질서를 주도해 나가 자주적인 역사를 펼쳐갈 수 있는 정치적 조건이 형성되는 것이 아닌가 기대합니다.

(대통령직인수위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전국순회토론회” 서울·인천·경기에서 2003. 2. 6)

## □ 동북아 시대의 주도를 위해 경제와 남북관계 두 축이 필요

우리가 동북아 시대를 주도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가장 부가가치 높은 무엇인가를 개척해 나가야 된다는 경제적 측면에 있어서의 중심적인 역할이 하나 필수적인 것이고, 또 하나는 남북관계의

개선입니다. 남북대화를 통해서 남북문제를 풀어낼 때라야 우리가 동북아 시대를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사고의 지평을 많이 넓혀 나갈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제일 가까이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 외국과의 교류나 투자에 대해서 지금까지 다소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다시 고쳐 나가야 합니다.

1980년대에는 저 스스로도 외국 자본에 대해서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새로운 동북아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을 때 필수적인 것은 외국과 외국 자본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져야 합니다. 아울러서 일본과 중국을 바라보는 관점도 달라져야 합니다. 과거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미래를 함께 형성해 가야 될 동반자로서의 일본과 중국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 이것도 함께 가져야 됩니다.

(대통령직인수위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전국순회토론회” 서울·인천·경기에서 2003. 2. 6)

## 2. 개방은 대한민국의 생존전략

### □ 개방은 저항할 수 없는 대세

그리고 개방을 전제로 한 정책 아니냐, 오늘은 그 토론을 깊이 할 수 없습니다만 제가 앞으로 농민단체와 만났을 때, “개방 안 하고 배길 재간 있냐” 제가 그렇게 질문을 한번해 보려고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지금 개방에 정면 대결할 것이냐, 아니면 개방을 수용하면서 그 개방으로 인한 농민들의 문제들을 다른 방법으로 해결해 갈 것이냐를 놓고 정책선택을 해야 하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만나면 개방은 저항할 수 없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도 이제 우리 모두 특 터놓고 얘기를 깊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 기회를 제가 드리도록 하려고 합니다.

(대통령직인수위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전국순회토론회” 전북에서 2003. 2. 11)

## □ 개방은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

개방은 우리의 생존 전략입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높은 교육열과 도전 정신, 그리고 개방을 통해 성공해 왔습니다. 과거 개방 때마다 많은 반대와 우려가 있었지만 그것은 오히려 새로운 기회가 되었습니다.

미국과의 FTA는 또 하나의 도전입니다. 도전은 항상 불안한 것이지만 도전하지 않고는 더 나은 미래를 열 수가 없습니다.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경쟁의 질적 수준을 한 FTA단계 더 높여야 합니다.

미국은 세계 최대 시장이자 최고의 시장입니다. 그동안은 일본의 성장 모델을 좇아왔지만 이제는 중국의 추격을 뿌리치고 일본을 넘어설 새로운 성공 모델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그러자면 미국 시장에서, 특히 서비스 산업에서 미국과 경쟁하여 성공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국민의 역량을 믿습니다. 우리 국민은 끊임없이 신화를 창조해 온 국민입니다.

(제61주년 광복절 기념 경축사에서 2006. 8. 15)

## □ FTA, ‘이념’ ‘옳고 그름’ 문제 아닌 ‘먹고사는 문제’로 접근해야

금년에 비준이 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선거가 있는 해여서 국회의 각 당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여러 가지로 걱정이 됩니다.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정치든 언론이든, 또 찬성이든 반대든 객관적으로 명백한 사실을 가지고 토론하자, 그리고 사리에 맞게 토론하자, 전혀 근거 없는 사실 가지고 터무니없는 논리를 끌어들여서 그냥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장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더욱이 FTA는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상적으로 좌·우의 문제도 아닙니다.

이거 국민들이 먹고사는 문제지 않습니까? 이걸 가지고 자꾸 어떤 사상적인, 이념적인 대결의 수단으로 끌어넣으려고 하는 것은 현명한 처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국민들이 모두 좀 책임 있게 냉정하고 차분하게 이 문제를 풀어 나간다면 비준도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mbn 특별회견에서 2007. 5. 21)

## □ 수동적 개방이 아닌 자의에 의한 능동적 개방이 되어야

FTA 부분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FTA가 일반화되면서 체결이 안 된 나라에서 우리 상품이 밀리고 추방 위기감이 드는 시기입니다. 좀 적극적으로 해 나가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 우리 기업이 해외에 투자 진출하는 모습을 보면, 이제 우리 경제가 요구에 의해, 물건을 팔기 위해 문을 여는 수동적 개방이 아니라 능동적 개방으로 가야 할 단계로 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대외경제전략이 능동적 적극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동안 잘 했으나 또 한 번 업그레이드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술과 경쟁력, 시장에서의 활동능력 등 여러 측면에서 여러가지 과정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리 경제의 질적 수준을 한 단계 높여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여러분이 연구를 통해 검증해 줘야 할 문제이나, 그런 관점에서 FTA는 적극적으로 추진할 생각입니다. 다만 모든 일에 양면성이 있습니다. 잘 대응하면 훌륭히 극복할 수 있지만 잘 대응하지 못하면 애로점을 극복하지 못할 수도 있어, 치밀한 준비를 갖추고 능력 있게 접근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국민경제자문회의 및 제3차 대외경제위원회 회의에서 2004. 12. 16)

## □ 교역주도권 잡지 못한 나라 강대국된 역사 없어

FTA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여기도 경제보좌관이 오려고 하다가 경제수석이 왔고, 외교부 장관과 담당 공무원들과 수시로 점검하는데, 꼭 될 줄 알았는데 마지막이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한국을 볼 때 FTA를 하는 게 맞습니까? 안 하는 게 맞습니까?

세계 역사를 보면 인류 최초 문명이 발생한 것은 농경사회이고, 치산치수와 관개 때문에 국가가 발생했다는 설이 유력합니다. 그러나 그 뒤에 세력을 떨친 나라를 보면 대개 상업으로 크게 성공한 나라입니다. 특히 16세기 지리상의 대발견 이후는 확실히 상업이죠. 포르투갈이 항로 발견하면서 중동 지역이 침체됩니다. 지중해 세계가 대서양으로 옮겨 갑니다. 스페인, 포르투

갈, 네덜란드, 영국에 가서야 종착하고, 영국에선 산업혁명에 따라 공업 붐이 일어납니다. 공업 발전과 함께 상공업이 자본주의를 따르면서 영국이 지배하다가 1900년대부터 미국이 서서히 앞지르게 됩니다.

미국이 유럽을 결정적으로 앞지르게 된 것은 1차 대전입니다. 지금까지 초강대국 지위를 누리고 있습니다. 교역에서 주도권 잡지 않은 나라가 강국이 된 일은 없습니다. 여러 조건 있지만 교역이 활발해야 합니다. 독일 통일 때도 관세 문제가 없었다면 제각각 떨어져 살았을 겁니다. 국가의 성립이 관세 철폐부터 일어났고, 그러면서 독일도 강대국으로 등장했습니다. 그만큼 통상은 국가 발전의 핵심입니다.

(카타르 동포 간담회에서 2007. 3. 29)

세계의 문명 발달사를 보면, 개방과 교류를 활발히 한 국가는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했지만, 문을 닫은 나라가 성공한 경우는 없습니다. 한국도 지난 반세기 동안 개방을 통해 세계와 함께 호흡함으로써 세계 10위권의 경제로 올라설 수 있었습니다. 개방 때마다 많은 반대와 우려가 있었지만, 우리 국민은 그때마다 도전을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개방을 거부하는 폐쇄주의의 흐름도 있었습니다. 19세기 말 서양문물을 배척하고 통상에 반대하는 위정척사론이 폐쇄적 시대를 끌어들여 급기야 일제에 나라를 빼앗기는 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세계 역사를 봐도 단일 사상체계를 가지고 모든 것을 해석하고 다른 제도나 문화에 대해서 배타적인 입장을 취했던 교조주의는 성공하지 못했고, 결국 국 인간사회에 큰 불행을 안겨 주었습니다.

한국이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와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고, 외국자본이나 외국인 근로자 등에 대해서도 보다 개방적인 사고를 가져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방의 대세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한국의 미래가 달려있습니다.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해서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과 경쟁력을 한층 높이는 계기로 삼아나 가고자 합니다.

(‘FAZ’ 출간 「권력자들의 말」 기고문에서 2007. 10. 15)

## □ FTA 통해 우리나라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만들어야

물류 중개기술, 금융, 법률, 회계로 기업 지원하는 일, IT 산업, 사업 서비스 등 머리 쓰는 서비스에서부터 경영관리 잘하는 기술 수준까지 올라가야 합니다.

FTA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끼리의 기술만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세계의 제도와 섞이지 않으면 수준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법률, 회계, 금융, 물류 등이 다 그렇습니다. 공부 많이 한 사람이 머리를 많이 써 종사해야 합니다. 광고, 미디어 등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FTA 가지고 물건 얼마 더 파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미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미국과 협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분야도 급속히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서비스 분야도 성장해서 우리 한국의 인력이 세계 최고 수준 갓출 때, 한국에도 허브라는 개념이 성립되고 사람들이 몰려들게 됩니다. 기업하는 사람들은 우수 인력이 들어 올 수 있고 살기 편한 조건이 갖추어지면 들어오게 되고, 그 조건을 갓출 때 동북아의 허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교육, 의료, 문화 수준이 높아져야 우수한 사람이 함께 와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UAE 동포 간담회에서 2006. 5. 14)

## □ 개방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이자 도약의 기회

전 세계에서 한국의 개방도가 가장 높을 것입니다. 수출해서 먹고살고, 무역으로 먹고사는 나라인데 능동적으로 개방해 나가지 않으면 경제가 한계에 부딪히고 위축되는 것입니다. 한국은 두려워하면서도 더 이상 개방을 늦출 수 없어 부득이 개방을 했습니다. 부득이 했던 모든 개방은 성공했습니다. 피해 없는 정도가 아니라 개방으로 인해 한국 경제의 체질이 강해지고 시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 다 그와 같은 영업 형태를 한국 기업이 가지고 해외로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개방하면 다 성공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편하지 않습니다. 경쟁의 상대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전보다 더 연구하고 혁신하고 땀을 흘려야 합니다. 다 힘든 일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성공하는 것이 아니고 경쟁이 강해지는 만큼 낙오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적은 수라 하더라도 새로운 경쟁에서 낙오하는 사람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 사람이 완전히 낙오하지 않게 또 다른 대책으로 패자부활전을 가지도록 기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국의 경쟁력이 나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FTA를 과감하게 결정했습니다.

한국은 미국시장에서, EU시장에서 경쟁하는 국가입니다. 한국의 경제역량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FTA가 한국에게는 또 다른 기회입니다. 도약하는 기회입니다.

(워싱턴주 동포 간담회에서 2007. 7. 1)

### 3. 전 국민의 걱정 근심을, 정부라고 왜 안하겠습니까

#### □ 대통령 전 임기에 걸쳐 준비해

졸속이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설명했습니다. 적어도 우리 정부 차원에서는 2003년부터 준비했습니다. 대통령이 보고를 받고 의사 표시를 하기 시작한 것은 2004년부터입니다. 그 다음 대통령이 통상교섭본부장에게 지시를 한 것은 2005년 5월경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검토했고 많은 정보와 자료들이 쌓여 있습니다.

만약 졸속이었다면, 1,2월 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 국회에서도 진작 특위를 만들었어야 합니다. 7월 하순경 특위가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한 6개월 동안 바쁘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국회가 밤낮 없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까? 매주 논의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이따금 한 번씩 열어 가지고 서류 보자고 하고 안 보여 준다고만 논쟁할 뿐이지, 실제로 지금 일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 느긋하게 하고 있습니다. 제일 바쁜 데는 협상팀입니다. 협상팀은



그야말로 밤잠 안 자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 팀을 믿고요.

(MBC “백분토론”에서 2006. 9. 28)

## □ 농업문제는 국가과제의 중요한 정책

농업문제가 해결이 잘 되면 우리 국가과제 중 아주 중요한 한 부분이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농민들 스스로 걱정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농민이 아닌 많은 국민들이 다 함께 큰 문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부에서는 우리 농촌문제가 매듭이 되었다고 할 만큼 좋은 대책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희망입니다. 길을 한번 찾아 보십시오.

(대통령직인수위 9차회의 “개방화시대 농어촌 대책” 발언 중에서 2003. 1. 24)

협상전략만으로 되는 일이 아니지요. 근본적으로 국내 농업정책을 통해서 그동안 준비해 온 것이 축적되어야 합니다. EU의 프로그램은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농업개혁정책 계획을 가지고 협상을 하면 우리도 계획을 가지고 협상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지난 8년 동안 상황을 예측하고 대상이 될 만한 품목에 대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 왔다는 것을 국민들한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책임져야 됩니다. 나는 공무원 집단이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여건이 아무리 어려웠다 하더라도 충분히 예측되었던 일 아닙니까? 1986년부터 예측되었던 일이라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그것을 1995년에 얻어맞았고, 그리고 또 시간이 얼마입니까?

재고문제 이것은 이것대로 대책을 세워 나가야 되겠지만 지금은 그냥 막연할 뿐이거든요. 제가 후보 때 쌀 문제에 대해서 들었는데 무슨 말인지 통 모르겠더라고요. 통 못 알아듣겠습니다. 오늘 해양수산부 공무원들도 와 있지만 제가 말귀를 굉장히 빨리 알아듣는다는 것을 비교적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쌀 얘기만 들으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대강하고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것 누구 한 사람한테 책임을 물어볼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아무 책임도 아

나라고 말할 수도 없는 아주 기묘한 상황에 부딪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선배들한테 물려받았다고 얘기하겠지요. “내가 과장이 되었을 때에는, 내가 국장이 되었을 때에는……” 그렇겠지요.

(대통령직인수위 9차회의 “개방화시대 농어촌 대책”에서 2003. 1. 24)

#### □ “개방 정책 모두 성공”…외환위기, 개방 아닌 금융감독체계 부실 탓

물론 우리도 그동안 국내 산업을 보호하면서 점진적으로 개방했습니다. 그 속도가 빠르다, 느리다 논란이 있지만, 개방은 모두 성공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1995년, 1996년에 우리 종합금융사를 개방한 것, 종금사가 외환거래하도록 개방한 것이 IMF의 원인이라고 하지만, 나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개방 때문이 아니라 당시 금융감독체계가 서 있지 않았습니니다.

관치금융이어서 시장 원리를 몰라서 일어난 것입니다. 은행도 부도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책임경영을 했다면 그런 일이 없었을 겁니다. 금융감독도 느슨했고 전부 분산됐고 준비가 없었습니다. 권력의 속성인데, 아마 대충격이 없었다면 아직도 금융만은 관치하겠다고 우기는 권력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큰 충격이 있었기 때문에 민간 금융으로 일거에 넘어간 것이지 충격이 없다면 권력의 습성이 쥘 것을 놓지 않습니다. 저도 직접 경험해 봐서 아는데 개인이 아니라 집단의 문제인데, 하나라도 쥐는 것은 안 놓으려 하는 겁니다.

(카타르 동포 간담회에서 2007. 3. 29)

#### □ 과장되지 않고 왜곡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설명하고 동의를 확보해야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한 고비를 넘긴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숨 돌릴 형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앞으로 FTA가 비준되면 이익을 보는 사람도 많겠지만, 손해를 볼 국민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손해 볼 국민들에 대해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 손해를 보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서 단지 손해 보지 않을 수준이 아니라, 어려워지는 분야에서 경쟁력 강화를 통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전화위복의 결

과도 만들어 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 착실히 준비하고 대비해 나가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 오늘 우리가 모인 것입니다.

두번째는 비준을 앞두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혼란스럽습니다. 찬반 주장들이 명확하지 않아서 혼란스럽고, 그래서 국민들은 어느 쪽 손을 들어야 될지 망설이고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가 가지고 있는 정보라도 모든 것이 상황을 가정한 예측이어서 100% 정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협정 체결 이전과는 달리 조건이 명확해졌기 때문에 이것을 근거로 보다 더 정확하게 예측하고, 이것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국민적 동의를 확보해 나가야 합니다.

비준이 안 되는 한이 있더라도 책임을 진다는 자세로 임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이후 계속해서 그렇게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회의는 내용이 직간접으로 공개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용이 공개된다고 야끼지 말고 가차 없이 질문할 것은 질문하고, 따질 것은 따지는 그런 자리가 되어도 좋습니다. 오늘 이 세미나가 좋은 성과를 거두고, 이것이 매우 중요한 계기에 국민들을 위해서 땀 흘리는 좋은 자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미 FTA 워크숍에서 2007. 4. 3)

#### □ FTA로 손해 볼 10%, 그냥 손해만 보게 하지는 않을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해를 보는 사람은 봅니다. 그러나 손해를 보는 사람은 10% 이하일 것입니다. 이익을 보는 사람은 우리 국민의 90% 이상입니다. 그리고 손해 보는 사람들에게 그냥 손해 보게 하지 않겠다, 그것이 우리 정부의 확고한 정책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도 지지해 주지 않겠습니까? 모두가 이익을 보기 위한 것인데요.

보통 지금까지는 전부 농촌 출신이고 농촌에 고향을 두고 농민들을 부모로 모시고 있어서 농업 하면 우리가 - 소비자가 - 다 양보했습니다. 농업 쪽에는 앞으로 큰 손해 보이지 않고도 잘하면 소비자가 아주 큰 이익을 볼 수 있는 것이 FTA이기 때문에, 이제 소비자의 관점에서 그 편익을 좀 생각해 야 됩니다.

대강 계산상으로 20조 후생이 증가한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적은 것이 아니죠. 우리 농업은 걱정입니다만 하여튼 확고한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농민의 60%가 60세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 놓은 10~15년의 유예기간에 자연스런 구조조정 여유가 생기리라 봅니다. 너무 과장되게 피해를 얘기하고 불안을 조성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mbn 특별회견에서 2007. 5. 21)

## □ 장애물을 이기고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걸림돌이 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변화에 대한 걸림돌이 바로 FTA에서도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첫번째는 이해관계의 문제입니다. 이익 보는 사람도 있고 손해 보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손해 보는 사람이 반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부와 국민이 합심해서 손해 보는 사람도 손해 보지 않게, 나아가서 시간이 조금 더 흐르면 지금은 손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더불어서 이익을 보는 결과로 되도록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그것은 국민적 합의로 성립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합심해서, 지금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한발 더 나아가 결과로서의 이해관계로 좀 멀리 크게 보는 자세로서 이 장애를 함께 극복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번째 장애는 유연성이 없는 낡은 사고체계입니다. 보기에 따라 교조적 이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한때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한국 사회의 여러 가지 병폐들을 보면서 그것을 치유하고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념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의 세계는 종속이론 시대가 아닙니다. 20년또는30년 전에는 민족경제론이 적절한 이론이었을 수도 있지만, 이미 30년이 지난 지금 이 시점에서 민족경제론은 더 이상 적용할 수 있는 이론이 아닙니다. 세상이 변화하듯이 이론도 변화해야 합니다.

세번째는 불안감입니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경험해 보지 않은 미지의 세계는 불안한 것입니다. 가만 있으면 이대로 갈 텐데, 이런 착각을 우리는 가지죠. 큰 배가 가라앉아도 가라앉는 줄 모르고 춤추고 노래하고, 그리

고 설사 가라앉는다 해도 파도가 무서워서 보트를 내리는 용기를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결국 가라앉아 죽는 것인데도 사람들은 미래를 선택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지금 현명한 사람들은 다 확실하다고 믿는데, 다 현명한 것은 아닙니다. 또 상당히 현명한 사람들도 불확실성을 너무 크게 보는 것이죠. 이것이 또 하나의 장애요인입니다.

이 세 가지 다 우리가 극복해야 될 발전의 걸림돌입니다. 이 세 가지 모두가 FTA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진보, 발전, 모든 영역에서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극복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한·미 FTA 협상 및 비준관련 격려 오찬에서 2007. 8. 28)

#### **4. 한국 경제 자신감 갖고 능동적 개방, 경쟁 충분히 감당할 것**

##### **□ 외자 유치에 위한 획기적인 전기 마련**

변화라는 것은 우리 생존과 성공의 핵심 조건입니다. 변화는 한편으론 두렵고 한편으론 힘든 일입니다. 1980년대만 해도 외채문제가 심각했는데 외국자본이 우리의 국부를 수탈한다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10여 년 지났을 때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새로운 전략으로 외자유치를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외자유치는 이제 경쟁력 강화와 성장 잠재력을 위한 전략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눈이 어지러울 만큼 엄청난 변화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은 어려움 속에서도 변화의 과정을 잘 겪어 가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유치는 이제 경제 활력을 복돋우고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것이란 국민적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WTO 체제로 한국이 편입됐을 때 엄청난 저항이 있었지만 오히려 시장개방을 실력을 키우는 전기로 만들었습니다. 금융시장의 획기적 개방이 이뤄졌는데, 그 충격이 IMF의 일단의 원인을 제공하긴 했지만 한국 경제의 시스템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투자유치가 중요한 시기입니

다. 하나하나 부딪힐 때마다 불안하지만 국민들이 잘 극복하고 있습니다.

FTA 변화 환경에 부딪히면서 국내적으로 내성을 키우고 구조조정을 해야 합니다. 저항이 있더라도 박차를 가해 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외국인 투자유치가 아직 원만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사정이 있습니다. 원인이 무엇인지도 중요하지만, 지금 뭔가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외국인 투자유치 담당공무원과의 대화에서 2003. 10. 30)

## □ 선진국 수준의 제도 마련

이제 시스템이 정비되었습니다. 수출은 두 자릿수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속적으로 개방해 나가고 있고 국내의 제도들도 전부 다 국제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FTA는 그 자체로서 우리가 얻으려는 이익도 있지만, FTA를 통해서 국내의 제도를 국제 기준에 맞춰 나감으로써 우리 경제의 수준을 높여 나가자고 하는 전략적 목표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시장도 중요하지만 FTA를 통해서 국내의 제도를 개혁해 나가자, 이것이 또 하나의 목표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준에 이르기까지는 많은 갈등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거역할 수 없는 흐름이고 성공할 것입니다.

한국 기업의 시장은 이미 전 세계를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한국에서 요즘 성장률이 5%에 미치지 못하고 소비가 낮습니다. 이 점을 매우 우려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석적으로 보면 수출기업 등 잘 되는 기업을 뒷받침하고 있는 기업지원 서비스라든지 부품소재라든지, 이런 쪽은 조금도 위축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내의 전반적인 소비수준과는 달리 기업의 생산재 수요는 결코 역동적이지 않다고 얘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외국인 투자유치 보고회에서 2006. 11. 2)

## □ EU, 캐나다, 호주 등과 동시다발적 FTA 진행 중

안심이 됩니다. 문제도 잘 파악하고 있고 충분히 대처할 만한 능력과 준비를 잘 갖추고 있는 것 같아서 이대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FTA든 협상 결과로써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경제적 이익이 협상의 목표입니다. 그러나 한·미 FTA, 한·EU FTA는 이와 더불어 우리나라 사회와 경제 제도, 그리고 대외 경쟁력을 미국과 EU의 수준으로 끌어 올리려는 전략적 목표를 가진 협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도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각 부처와 협상팀이 적극적으로 풀어 나가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해방 이후 부딪혀 왔던 시련과 도전을 우리 국민들이 잘 극복해 왔습니다. 해외에 나가 봐도 여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 국민들이 잘해 나가고 있습니다. 역량과 실력이 있습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적으로 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후발 국가들의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따라잡히지 않으려면 이 수준에서 머무르면 안 됩니다. 한 단계 도약이 필요합니다. 어려워도 잘 극복해 나가 주십시오.

(한·EU FTA 협상 현황 및 대책 보고에서 2007. 7. 13)

## □ 한국 경제 자신감 갖고 능동적 개방, 경쟁 충분히 감당할 것

한·미 FTA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이제 비준을 남겨 놓고 있습니다. 한·미 FTA가 왜 중요하냐면, 그것은 이제 우리가 떠밀리는 개방이 아니라 한국 경제가 스스로 자신감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개방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한국 경제는 자신감을 가지고 계속 개방을 해 나갈 것입니다. 그것은 한국 경제의 시장이 넓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만큼 경쟁도 더 치열해질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능히 그 치열해지는 경쟁을 충분히 감당해 나가고 앞서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 EU와의 FTA도 체결될 것입니다. 목표는 금년 연말까지 반드시 체결하는 것입니다. 지금 좀 지체되고 있지만, 큰 장애는 없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6차 세계한상대회 개막식 발언 중에서 2007. 10. 31)

## 5. 대한민국, 이제 안심하고 투자하십시오

### □ 문 걸어 닫고 성공한 나라는 없어

개방은 피할 수 없는 대세입니다. 지금까지 개방한 나라는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했지만, 문을 닫고 성공한 나라는 없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10위권의 경제로 올라선 데에도 개방의 힘이 컸습니다.

한·미 FTA는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21세기 대한민국의 전략적인 선택입니다.

미국과의 FTA는 세계 최대시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게 될 뿐만 아니라,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경제구조를 고도화하고 더 많은 고급 일자리를 창출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한·미 FTA에 대한 반대와 우려도 있습니다만, 우리 국민의 역량이라면 반드시 성공해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개방의 역사가 이를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농업 등 개방으로 어려움을 겪게 될 분야에 대해서는 이미 제도혁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추가적인 보완대책도 마련 중에 있습니다.

한·미 양국은 지난 네 차례의 협상을 통해 상품양허·서비스 유보안에 대한 기본원칙 합의에 진전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한·미 FTA가 조속히 그리고 반드시 타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목표시한에 쫓겨 중요한 내용을 포기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협상과정 또한 국회 내에 설치된 한·미 FTA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충분히 공개해 나갈 것입니다.

국회에서도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국회가 한·미 FTA 협상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00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에서 2006. 11. 6)



## □ 동북아의 중심에 한국이 있어

앞으로 세계의 경제적, 정치적 질서 속에서 동북아와 남미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 동북아와 남미 사이의 활발한 경제적 교류와 협력이 증대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변화는 이미 시작됐다고 생각합니다. 지리적으로 칠레와 한국은 두 지역을 연결하는 지리적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시장경제, 국가 투명성, 과학기술, 그리고 산업수준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한국과 칠레는 미래 국제질서에 대한 이상을 공유하고 협력해 왔습니다. 이러한 토대 위에서 한·칠레 간 FTA 협정이 체결되고 발효됐고 지속적인 협력을 다져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일국 간의 상호 경제적인 이익을 표방하는 단순한 협력의 수준을 뛰어넘는 관계를 우리는 양국 간에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앞으로 양국은 이와 같은 위상에 걸맞도록 교류와 협력에 힘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데 인식을 함께 했습니다.

(한·칠레 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에서 2004. 11. 20)

## □ 한국은 고학력 인적자원을 통해 전 세계 금융, 물류 허브될 것

한국은 지리적 접근성에 있어서 반드시 허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화적 접근성에 있어서 중국과도 통하고 일본과도 통할 수 있는 특수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있어서도 허브를 할 수 있는 조건은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경제의 진화 방향, 발전 방향에 대한 과거의 족적을 짚어 보면 한국이 허브전략을 채택하지 않을 수 없고 또한 성공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요소투입형 경제를 통해서 산업화 과정을 겪어 왔고, 지금은 혁신주도형 전략을 채택함으로써 첨단산업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에 있는 것은 고급의 지식서비스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융, 물류 이 부분에 우리가 집중할 것이고, 또 우리는 그만큼 인적자원을 가지고 있기 때

문에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한국의 하나의 약점이자 강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대학교 가는 학생들이 너무 많습니다. 고학력 인력이 너무 많은 것이 약점인데, 이것을 지금 갑자기 낮출 수는 없고 우리는 거기에 맞는 경제를 만들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집중할 것입니다. 다만 여기에 참여해 주시는 많은 세계의 기업들이 이 성공의 큰 관건이 될 것이기에 도와주십사 하는 말씀 드립니다. 믿고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외국인 투자유치 보고회에서 2006. 11. 2)

## □ 한국은 투자할 만한 곳

한국의 노동자 또는 직장인들의 숙련과 기술적 수준, 일에 대한 열정 이런 것은 상당히 우수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위에 저는 5년간 사람의 역량, 사람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수행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동안 일부 공공부문의 집단해고를 둘러싼 강경한 노동자들의 투쟁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제 그 민영화문제도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외국기업이 한국에 지사를 설치한다거나, 연구개발센터를 둔다거나, 또는 제조업을 운영한다거나, 하는 어느 경우에도 지금 노사문제는 그렇게 심각한 갈등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자꾸 한국의 노사문제가 크게 소문이 난 것은 공동부문이라는 큰 싸움이 더러 있고, 말하자면 외국의 투자와 관계없는 큰 싸움이 가끔 있고, 그것이 신문에 크게 보도되기 때문에 그런 느낌을 받는 것이지 실제 사업에 지장을 줄 만한 갈등은 현재 거의 없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에 투자를 해서 기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한국의 노동자들이 아주 훨씬 더 온건하고 요구수준도 낮고 부지런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틀림없이 확실합니다.

(뉴스위크 인터뷰에서 2003. 2. 19)

## □ 대한민국, 이제 안심하고 투자하십시오

칠레, 싱가포르와는 이미 체결했고, 일본과 아세안과는 현재 진행 중이며, 미국과 캐나다와도 준비단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속도를 붙이기 위해 대외경제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통상교섭본부가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는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한국기업들이 브릭스(BRICs,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국가와 교역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교역에서 불리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는 한국에 투자하는 모든 기업에게 적용되는 고려사항으로 우리가 FTA를 하는 것이 한국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에도 유리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불법파업은 거의 없어지고 있습니다. 합법파업도 건수는 늘었지만 손실일수 등 생산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많이 달라지고 있는 것은 일반국민, 노동자들의 인식으로 아주 많이 바뀌었으며, 이 흐름은 지속될 것이고 다시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외국인 투자기업의 현장은 대기업보다 현재 안정돼 있습니다.

안심하고 투자하십시오.

단지 임금이나 시장의 크기만이 성공 조건이 아니며, 안정성과 법적 제도, 시장을 대하는 국민의 문화가 중요합니다. 기술 향상과 생산성 향상, 정부가 주도하는 사회제반제도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통해서 상당 기간 동안 유연성과 탄력성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1998년 이후 한국사회는 제도적으로 빠르게 안정되고 있고, 정치인, 기업가, 공무원, 노동자, 국민 모두가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방향으로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독일 국민방문 - 최고경영자 접견에서 2005. 4. 15)